

## Morphology

### OP-1 구연

A

골격성 3급 부정교합자의 혀와 설골의 위치 비교분석  
우광수, 김상철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이 연구는 골격성 3급 부정교합자에서 수직적 안모형태에 따른 혀와 설골의 위치변화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골격성 3급 부정교합자로 진단 받은 환자중 성인군(18세 이상) 63명, 성장군(18세 이하) 69명을 높은 하악평면 각도를 갖는 군(hyperdivergent group)과 낮은 하악평면 각도를 갖는 군(hypodivergent group)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대상의 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 혀와 설골의 위치를 계측하여 통계처리후 군간의 비교를 시행하였다.

혀의 높이는, 높은 하악평면각을 갖는 군보다는 낮은 하악평면각을 갖는 군에서, 성인군보다는 성장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설골의 수직적 높이는 높은 하악평면각을 갖는 군보다는 낮은 하악평면각을 갖는 군에서, 성인군보다는 성장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과 안모형태의 수직적 분류에 따른 설골의 전후방적인 위치는 차이가 없었다.

두개저에 대한 설골의 기울기에 있어, 성인군보다 성장군에서 좀더 가파른 경사도를 갖고 있었다.

## Etiology

### OP-2 구연

A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부정교합 환자에 관한 역학조사  
이 종진, 태 기출, 국 윤아, 김 상철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이 연구는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환자의 여러 진단자료를 분석하여 부정교합 환자의 내원 상황 및 변동 추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1983년 9월 5일부터 1991년 10월 16일까지 내원한 3,246명(남자 1,267명, 여자 1,979명)의 진단용 석고모형,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 파노라마 사진, 구내 및 안모 사진, 진단 기록을 기초로 하여 내원 상황 및 변동 추이를 조사하였다.

내원 환자의 성별은 여성이 61.0%로 많았으며 8~13세 연령군이 전체 내원 환자의 40.3%를 나타내었으며, Hellman 치령 IVa가 41.5%로 가장 많았다. 주소는 전치부 반대교합이 26.9%로 가장 많았으며 Angle씨 III급 부정교합이 40.9%로 가장 많았다. 또한 포괄적 교정술식으로 치료 받은 환자 중 33.7%에서 발치에 의한 치료를 하였고, 이 중 40.0%에서 4개의 제 1소구치를 발거하였다. 평균 치료기간은 전체적으로 34.8개월이었고, 비발치 치료의 경우 33.3개월이었으며, 발치 치료의 경우 37.5개월이었다.

## Diagnosis

### OP-3 구연

A

소구치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후 치열궁 크기와 형태에 관한 연구  
이 승미, 김 광원, 윤 영주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 교실

본 연구는 4개의 제 1 소구치를 발치하여 치료된 1급 부정교합 증례의 치열궁 크기와 형태를 브라켓 슬릿 레벨에서 알아 임상에 적용하고자 시행하였다.

치아의 크기는 정상범주이고 소구치를 발치해 치료한 모형 60개(남자 30개, 여자 30개)에 계측점을 설정한 후 방사선 불투과성 물질을 이용해 모형의 방사선 사진을 얻었다. 얻어진 방사선사진을 디지털타이저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치열궁 형태와 크기를 계측하고 통계처리(SAS)하였다.

브라켓 슬릿 레벨의 남녀 상하악 협설측 치열궁 형태가 그래픽화해 얻어졌고 이를 포물선 식과 결정계수로 표현 하였다. 치열궁 크기를 나타내는 대다수의 항목은 남자가 더 큰 평균값을 가졌나 유의차를 보인 것은 치열궁 폭경을 나타내는 항목들과 상악 치열궁 고경이었다( $p < 0.01$ ). 본 실험방법을 통해 측정된 상하악 1대구치간 폭경 차이는 남자가 평균 6.43mm, 여자가 평균 6.05mm였다.

본 연구 결과, 발치치료후 치열궁 형태는 정상 교합자의 치열궁 형태보다 ovoid한 형태에 가까워지고, 견치간 폭경을 제외하고 그 크기는 작아졌으며, 남자에서 더 큰 치열궁을 가져 발치치료 증례의 악어어 굴곡시 이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얻어진 상하악 1대구치간 폭경 차이값은 횡적 부조화 치료계획 수립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